

#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I. 나와 가족생활」 단원 내용에 대한 철학적 배경 분석

양 정 혜\*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 지 경 (한국 노동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여 교과에서 가정학 철학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가정교과서의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가정학이 지향하는 바가 교과서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가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연구 방법은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의 1단원 “나와 가족생활” 내용을 문헌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와 가족 생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에 의해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다. 그 중 가정과 교과에서 가족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지배적인 관점이 되어 온 것은 구조기능이론이라 할 수 있다. 구조기능이론은 가족을 사회 구조체계 내의 하위체계로 보고, 가족의 기능을 사회의 안정과 평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구조기능이론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실재를 간과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대 가족 및 가족생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구조기능이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가정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변증법적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Brown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개인 및 가족에 주목한다.

「I 나와 가족생활」단원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단원보다도 가치판단을 포함한 사고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단원이다. 현대의 복잡한 가족 생활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 사회 등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통해서 가족을 설명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정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족이 교과서에서 어떠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가정학의 학문적 방향과 교과에서의 방향 차이를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